

제 26호
전주시의회 회보



2022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



CONTENTS

04	발간사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05	축사 전주시장 김승수
06	History 전주시의회 연혁
07	후반기 구성 제11대 전주시의회 구성
08	전주시의회 의원 총람 제11대 후반기
10	의원 현황 행정구역으로 본 제11대 의원 현황
12	2021 의정활동 성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8	2021년 회기 운영현황

29	결의안
3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0	의원 연구단체 활동 조례연구회 / 의정보럼연구회 / 생태교통연구회 / 시정연구회 / 미래세대연구회 / 문화도시연구회
46	2021 의원 의정활동 시정질문 / 5분자유발언 등
79	지방의회 체험교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80	시의회 NEWS 전주시의회, 의정 30년 역사 기록에 담아
82	전주풍경 천만 그루 정원 도시 / 야호 놀이터 도시
86	회기운영계획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87	편집후기

2021 전주시의회 회보 제26호

발간등록번호 77-4640065-000001-10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발행처 전주시의회(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 230. 3730 / Fax. 063. 230. 3657) 디자인 / 인쇄 (주)한국페이퍼

2022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강 동 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및 주민주권 시행 확대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진력해온 의정활동을 모아 <제26회 의회보>를 발간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장기간 계속되어온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대책 마련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산업 발굴, 정책연구, 전문성 함양 등 의회의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의 성장을 도모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의미와 전주시의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주시의회 30년사』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입법, 행정적 제반 준비에 만전을 다하며,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해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며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전주시의회 의장 **강 동 화**

전주다움, 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오신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담은 <제26회 의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11대 의회는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선도적인 코로나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왔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력 오셨던 만큼, 이번 의회보 발간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은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보다 확대된 권한과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사명은 더욱 막중해지며,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그 역량과 의미가 크게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의 활약은 자치분권시대의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중대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의회보 발간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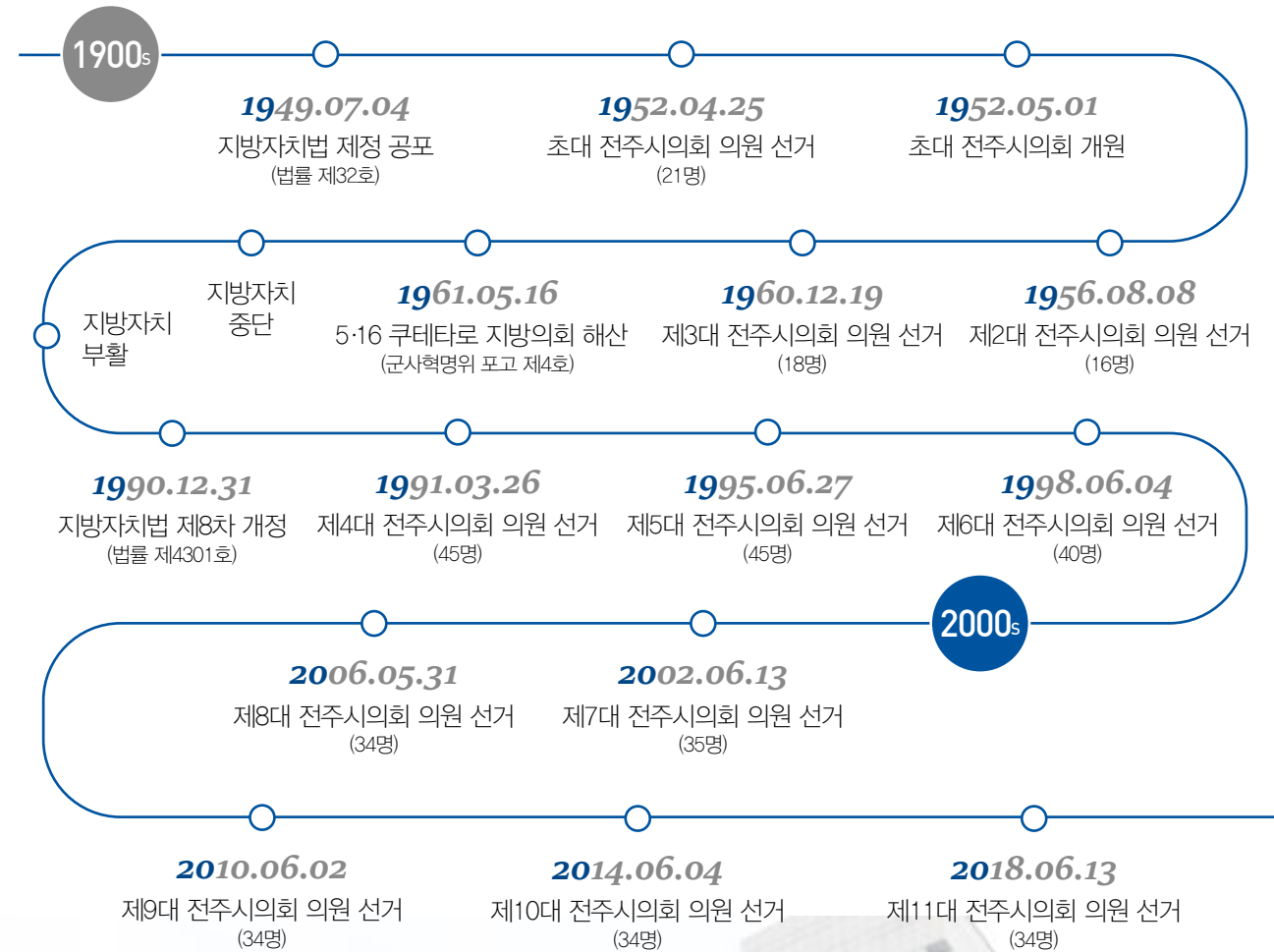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는 '가장 전주다운 힘으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저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는 혁신적인 상생의 정책들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아름다운 협력을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모두의 활기찬 기운과 밝은 희망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변화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전주시장 **김 승 수**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장 강동화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부의장 이미숙 (효자4·5동)	백영규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이기동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박병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송승용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양명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김원주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운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최용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정성길 (서신동)
					
최명철 (서신동)	박형배 (효자4·5동)	채영병 (효자4·5동)	김은영 (효자1·2·3동)	이경신 (효자1·2·3동)	김동현 (삼천1·2·3동)
					
김승섭 (삼천1·2·3동)	김현덕 (삼천1·2·3동)	김남규 (송천1·2동)	김운권 (송천1·2동)	김진옥 (송천1·2동)	강승원 (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송상준 (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송영진 (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김호성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박선진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서난이 (우아1·2, 호성동)	서윤근 (우아1·2, 호성동)
					
박윤정 (비례대표)	이윤자 (비례대표)	한승진 (비례대표)	허옥희 (비례대표)		



제11대 전주시의회 행정구역별 의원현황



김남규 김윤권 김진옥



강승원 송상준 송영진

서신동



정섬길 최명철

효자4·5동



박형배 이미숙 채영병

삼천1·2·3동



김동현 김승섭 김현덕

효자1 · 2 · 3동



김은영 이경신

중양, 완산, 중화산1·2동



백영규 이기동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강동화 김호성 박선전

우아1·2, 호성동



서난이 서윤근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원주 김윤철 최용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박병술 송승용 양영환 이남숙

비례대표



박윤정 이윤자 한승진 허옥희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기틀 다져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가치를 내걸고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민생 조례 등 322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41건, 동의안 94건, 결의안 7건 등 총 3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56건으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화재 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등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보편적 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출생정책, 환경정책,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33건)과 5분 자유발언(112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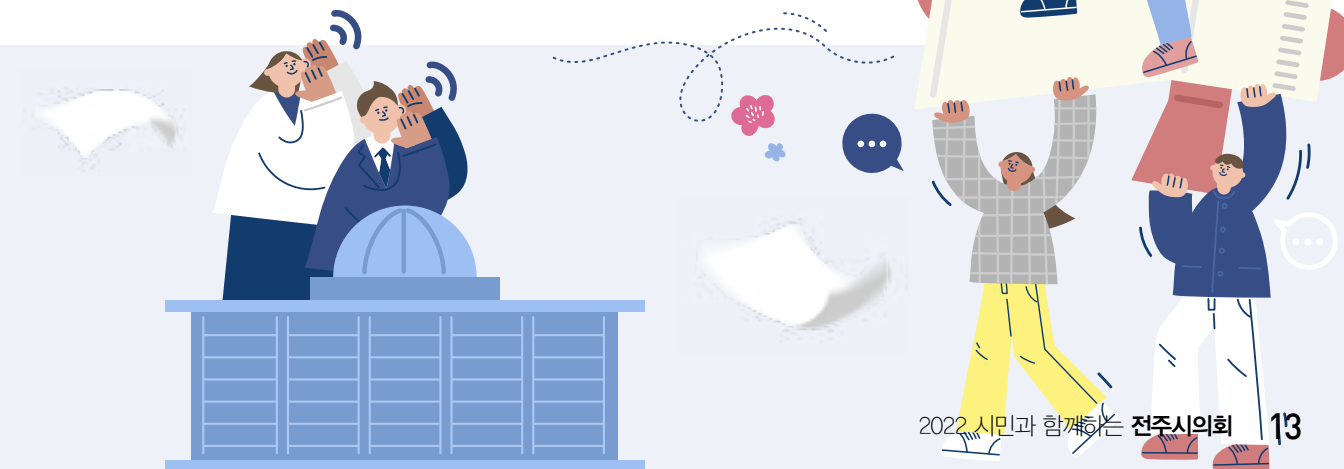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도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의정보럼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시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문화도시연구회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영향과 회복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방안, 기후 위기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전주 시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주 역사문화공간 조사를 통한 공공문화정책 제안, 선진화된 조례 입안 프로세스 정립 등 입법 연구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의원 홈페이지 동민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2021 의정활동 성과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 주력

의회운영위원회(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성길, 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통해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위원장 이기동



부위원장 김호성

또한, 위원회는 발전적 의회 구현을 위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함께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주요 안건인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한층 높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2, 3, 4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2021 의정활동 성과 |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인 행정 실현

행정위원회(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성길, 최명철 의원은 전주시정의 홍보와 예산, 인사, 감사, 조직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인권담당관·기획조정국·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민의(民意)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부터 제386회 정례회까지



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 강승원

10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29건, 동의안 1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위원회는 전주시립도서관, 삼천도서관, 학산숲속도서관 및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사업 현장, 전주교도소,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1



2



3



4

1 전주시 수소 버스 충전소 구축 현장 점검 2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지 현장 방문
3 아중호수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점검 4 덕진 청소차 차고지 신축 부지 현장 방문

2021 의정활동 성과 |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환경위원회(서난이, 허옥희, 김진옥, 백영규, 송승용, 이미숙, 채영병, 최용철 의원)는 66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보건소·맑은물사업본부·동물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 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올 한 해 위원회는 총 10차례 회의를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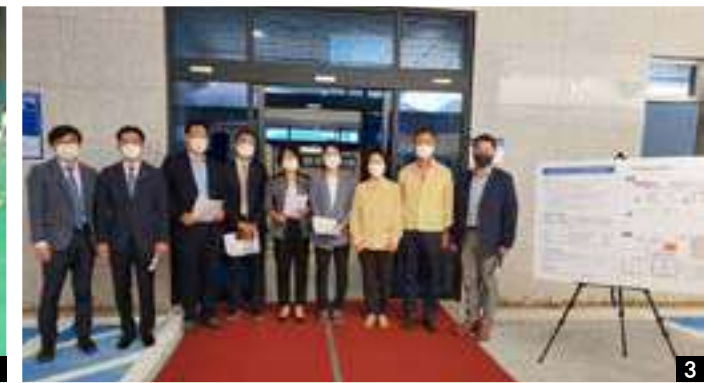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허옥희

조례안 32건, 동의안 47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동안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등의 제·개정으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주 시민햇빛발전소, 전주 순화원과 봉안당, 자원순환특화단지, 덕진보건소, 재활용센터 '다시봄'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1 전주 시민햇빛발전소 4호(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및 보훈공원 조성 현장 활동
2 화산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
3 덕진보건소 운영 상황 현장 점검
4 재활용센터 '다시봄' 현장 방문

2021 의정활동 성과 |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의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문화예술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신성장경제국·농업기술센터·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올 한 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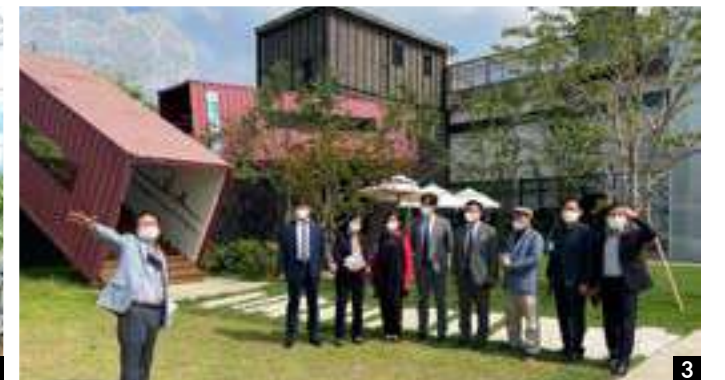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송영진

조례안 25건, 동의안 33건 등 총 6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개정해 관광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전북 VR·AR 제작거점센터, 딸기 육묘장, 팔복예술공장, 덕진체련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청취했으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1 전북 VR·AR 제작거점센터 현장 방문 2 고령동 딸기 육묘장 현장 방문
3 전주문화재단 주요 추진상황 점검 4 예술공간 '놀라운 예술터' 및 '뜻밖의 미술관' 현장활동

2021 의정활동 성과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주



부위원장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

지속발전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김원주, 김윤권, 김동현, 김호성,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양영환, 이경신 의원)는 시민안전담당관·생태도시국·사회연대지원단·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전주시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부터 제386회 정례회까지 10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37건, 동의안 17건 등 총 6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

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미래의 전주를 만드는 데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합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섰다.

위원회는 건천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현장, 동부대로 도로 포트홀 정비사업 현장, 효천교 신설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1 건천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동부대로 도로 포트홀 정비사업 현장 점검
2, 3 효천교 교량 건설 공사 현장 방문 4 주민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 제시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이윤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영규, 이윤자, 강승원, 김남규, 김진옥, 김호성, 박형배, 양영환, 이경신, 이남숙, 정성길, 채영병, 최명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의 증대되고 예산안 심사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한 연찬회를 통해 의

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2조 2,743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밖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1 '예산 심의 분석 특강' 연찬회 개최
2, 3,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1



2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민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선전, 박윤정, 김현덕, 박병술, 송상준, 송승용, 최용철, 허옥희, 김윤철, 송영진, 한승진, 김동현, 김윤권, 서윤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선출·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윤정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투명성·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정기준과 평가항목 정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의 안전장치 마련, 행정구역 통합 지연 문제, 복무 관리 문제, 조직개편의 문제점, 도서관 예산 관련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위 위원간 자료 분석 및 활동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4

1, 2, 3,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의

2021년 회기 운영현황

(2021.01.14. ~ 2021.12.16.)

회기운영 현황(제377회~제386회)

- 개최횟수 : 10회
- 회의일수 : 110일

회 기	개회일	폐회일	회의일수	주요 안건
제377회 임시회	2021.01.14.	2021.01.18.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78회 임시회	2021.02.19.	2021.02.26.	8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79회 임시회	2021.03.18.	2021.03.26.	9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0회 임시회	2021.04.19.	2021.04.23.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1회 임시회	2021.05.12.	2021.05.20.	9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제382회 제1차 정례회	2021.06.10.	2021.06.21.	12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3회 임시회	2021.07.15.	2021.07.22.	8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4회 임시회	2021.09.01.	2021.09.13.	13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5회 임시회	2021.10.06.	2021.10.14.	9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 · 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1.11.15.	2021.12.16.	3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결 의 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한다”

-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경직된 경기 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수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 중단,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을 따라왔다.
-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 조금만 참으면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티겠지만 이미 그 인내는 절규가 되고 폐업위기로 이어지고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소위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으며, 더 이상의 특정 계층에 대한 희생과 고통으로 지켜내기에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 더불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이 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해 66만 전주 시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1. 1.

결 의 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 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이러한 오염수를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인접국의 해양생태계와 식생활,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다.
- 만약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는 수세대 내에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 그런데도 인접국의 어떤 이해나 협의 노력도 없이 자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기필코 철회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 우리는 대한민국과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결 의 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한다”

-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한다.
-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비단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만연해있는 고립주의와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하나.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전주시의회 의장단, 팔복동 중소기업 방문



▲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1월 25일 팔복동 중소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전주시의회,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 전주시의회는 3월 18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위해 의원들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 설맞이 노인복지시설 위문



▲ 전주시의회가 2월 4일 설을 맞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



▲ 전주시의회가 3월 26일 나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이 먼저 나서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전주시의회가 5월 12일 의원들 대상으로 조직 내 성문화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정책토론회



▲ 전주시의회가 7월 13일 전주시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지역 저변 확대 및 태권도 보존 필요성 확립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주시의회가 6월 23일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구 환경 보호와 친환경 녹색교통 생태계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전주시의회가 7월 15일 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30년간 역사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다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미래세대연구회, 태양광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 전주시의회가 7월 21일 전주시 태양광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당위성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주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 전주시의회는 9월 16일 추석을 맞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 전주시의회는 7월 22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239차 시·도대표 회의, 전주에서 개최



▲ 전주시의회는 10월 19일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9차 시·도대표 회의를 함께해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 전주시의회는 11월 2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의 발전 방향 공유, 예·결산 심의, 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



▲ 전주시의회가 12월 2일 2022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위원들 대상으로 연찬회를 가졌다.

'전주시의회 30년史' 출판기념회 개최



▲ 전주시의회는 11월 15일 시민과 함께 한 지방의회 30년사 역사를 담은 '전주시의회 30년사'를 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시의회,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전주시의회가 12월 3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져 전주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례를 발굴하고 제정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 입법 활성화를 구현하였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조례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의정포럼연구회



조례연구회

제정 30건, 조례의 포괄위임에 따른 규칙 제정 13건, 조례의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규칙 미제정 39건 등 총 94건의 규칙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조례연구회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칙들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견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 조례들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례안을 발굴하여 시민의 편익과 의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연구회 송상준 회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의 중요한 영역이 의원 입법 발의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며 민생조례를 숙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향후 조례연구회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정착시켜, 내실 있는 조례개발과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조례 입안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남은 2022년도에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성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송상준 의원)는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민생 조례부터 전주시의 주요 제도 및 시책 운영 제고를 위한 정책조례까지 실효성 있는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2019년 진행한 「전주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 연구용역」의 연장선으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전주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및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 및 상위법 위배 여부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용역 결과 각각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칙



의정포럼연구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시민의 심리적 타진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만큼, 의정포럼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주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영향과 회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전주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전주시민들의 심리적 변화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도출된 다양한 심리치료 방안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심리지원에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사회 회복의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윤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울과 불안 등 '코로나블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방안들을 도출하고, 결과를 참고하여 전주시민들의 심리회복 방안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연구회(회장 이윤자 의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능동적 정책연구를 통해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현안에 대한 타지역 및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시민단체 및 지역 전문가들과 연계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특히 우울감, 무기력, 두려움 등 '코로나블루'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이의 심리적 회복방안에 대해 관심과 대처방안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생태교통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시정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뜻을 모았다. 2021년에 생태교통연구회는 연구회 주관으로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발굴 및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 회장 김진옥 의원은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전문가, 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진옥 의원)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아울러, 생태교통과 관련한 '지역 현안의 올바른 대안 제시'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생태교통 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시정연구회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정연구회(회장 박선전 의원)는 지역 현안에 대한 갈등구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연구회는 전주시 도시의 특성과 도시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주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주시

일반적 경제 현황 및 경기침체 현황 분석, 전주시 도시화 과정 및 코로나 19 전후 전주시 경제·산업구조 현황 및 통계화, 시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 나타난 전주시 경제·산업구조의 특성을 지역의 다양한 경제 분야 정책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역점사업들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 및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일상회복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전주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단체 회장인 박선전 의원은 "앞으로도 전문가,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전주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현안과 민생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미래세대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문화도시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강연회를 시리즈 형식으로 기획하여, 한국형 뉴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지난 4월에는 'K뉴딜 바로알기 시리즈 1부 - 디지털 · 사회안전망 뉴딜 편'을 통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판 뉴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전주만의 특화된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6월에는 지난 시리즈에 이어 'K뉴딜 바로알기 시리즈 2부 - 그린뉴딜편'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과 전주형 뉴딜사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했다.

미래세대연구회 백영규 회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전주시가 한국판 뉴딜 사업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세대연구회(회장 백영규 의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주형 기후 · 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 및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전환체계 확산을 통한 소외계층 및 지역 보호 체계 방안 등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년도에는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 'K-뉴딜 바로알기'



문화도시연구회

지명의 유래, 주요 유적과 유물 등 전주만의 특색있게 이어져 내려오는 무형의 정신문화 등 굵직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전주단오의 중흥과 보학박물관 건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지정 필요성 등 다양한 도시문화재생 활용방안 및 문화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며 전주 역사 · 문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문화가치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전주 역사문화공간 조사를 통한 공공문화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통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라는 품격에 맞게 문화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기존 문화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미지정 문화자산을 발굴 · 정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구회 회장 김현덕 의원은 "전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고, 올바른 인식과 고증을 바탕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며 "전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전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도시연구회(회장 김현덕 의원)는 전통적인 역사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며 지속적인 문화도시 전주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21일 '전주 역사 속에 담긴 문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주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주 역사와 문화,

2021의원 의정활동



백영규 의원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형'과 '뉴딜'의 진정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전주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주형 뉴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형 뉴딜'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저탄소 관련 시책에 '전주형 뉴딜'이라는 용어만 붙인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과제 지원 50개 현안을 보면 전주형 뉴딜의 주요 사업 분야인 수소·탄소 분야 기반 구축사업을 울산과 경주가 선점하고 있어 더욱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진다.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전주형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주만의 디지털·환경·문화·경제의 완벽한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주형'과 '뉴딜'의 시너지가 나와야 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백영규 의원은 7월 19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25만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주시 전체에 1개소 밖에 없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블루 등 시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보완해줘야 함에도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사업부서별로 중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기동 의원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5분 자유발언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치유농업 기반조성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무기력증)'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의 하나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전주시 역시 올해 치유농장 1개소와 원예 치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 사업 방식이다 보니, 중장기 집중 사업화 전략 및 관련 조례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전주시의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한다. 가장 먼저, 전주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험 프로그램 마련과 치유농장의 신규 육성사업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로 새로운 전환 계기 모색해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 새로운 변화 모색의 단초를 올바른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창업지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시대와 지역 상황을 반영한 기업가 정신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청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 지원 대상 필수교육 지정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공무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주형 기업가 정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가치이자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우리 과제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산하면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단순히 돈을 쫓는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성공을 희망하여 지역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21의원 의정활동



박 병 술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노인정책,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본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노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주시 자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체 분야별 균형 수요 정책을 실시하여 미래 복지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 전개해야 한다. 넷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의정활동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박병술 의원은 5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효(孝) 문화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인 효 문화 확산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효 문화를 통한 천년전주 명성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효행장려법의 제정이유를 되짚고 현 전주시에 맞는 효 프로그램 실행을 강조했다. 또한 효 정신이 과거의 정신문화가 아닌 21세기 미래사회에 필요한 삶의 지혜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 의원은 “예로부터 효는 만행의 근원으로서 사회윤리의 근본이 되어왔다”라며 “노인 공경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첫 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승 용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체류형 관광의 성공을 위해 전주만의 '한식' 콘텐츠 개발 촉구

전주시는 지역관광거점 도시 선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관광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류형 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상징성에 걸 맞는 한식을 통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육성을 제안한다. 태국의 경우 쿡킹 클래스 관광코스 운영 등 음식을 통한 관광 콘텐츠 육성이 성공적인 체류형 관광을 이끌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 한식 산업은 구색만 맞추고 있을 뿐, 새로운 비전과 구상을 찾기 힘들다. 특히, 한식 창의센터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금년 사업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라도 전주만의 한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주가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정활동

내용은 비슷, 담당부서는 다른 사업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 되어야

송승용 의원은 2월 24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유사하나 각기 다른 담당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보건소와 통합돌봄과의 경우, 보건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에서도 따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별 사업이 추진될 수는 있겠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의 원칙으로 보자면 보건소의 건강 앱이나 통합돌봄과의 동작감지시스템, 또 보건복지부의 개별적 앱 등 모든 것을 취합하여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통합적 의료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앞으로 부서 간 사례 공유 등 협조를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의원 의정활동



양영환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효자공원 묘지, 시민에게 친밀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효자공원묘지를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건축 관련 구조물 허가를 제한하고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유희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 공연장, 테마별 소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승화원과 봉안당을 현 위치에 재건축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인 만큼 주변의 부분 건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간구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최단기간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봉안당은 신축보다 인근 사설 납골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분 자유발언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 생존에 필수

전주는 지정학적 위치상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점점 나아갈 길이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35사단 이전,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을 비롯한 여러 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항공대 이전 문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주대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도내 지역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자 한다. 35사단 이전 등 시급한 현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행정협의체라는 상호 소통의 장은 상생의 교두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초광역화 시대, 전주권 지역들의 행정협의체는 공생을 위한 시급적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남숙 의원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5분 자유발언

동물원 내 드림랜드의 이전·신축 방안 마련 촉구

43년간 전주시민과 함께해왔던 전주동물원은 이제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에 반해, 여전히 동물원 내 한편에는 29년 전의 드림랜드가 존재하고 있다. 전주시 유일의 종합 놀이동산시설임에도 새로 단장한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허물스러짐 유지되고 있다. 드림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놀이기구의 안정성이다. 놀이기구 총 13종 중 10개의 기구가 29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 내 놀이동산시설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드림랜드의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검토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드림랜드가 전주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주 드림랜드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 확대 및 추진체계 일원화 촉구

전주시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효율적인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금액 증액과 상품을 다양화 해야한다. 둘째,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들의 현장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산자에게는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1의원 의정활동



김원주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5분 자유발언

인후·반촌 지역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촉구

원도심은 생활기반시설 미흡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에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의 자산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역 자산은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단순한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만으로 운영하다 실패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보다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 자산화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동문 사거리 명소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전주시는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등 지자체 단위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동문 거리에서도 동문 문화형 골목길 조성 사업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동문 거리는 쇠퇴하고만 있는 현실이다. 동문 거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흥지서림을 중심으로 30여 곳의 책방이 모여있고 <훈불>의 최명희 작가 등 한국 문단 거장들의 숨결이 묻어나는 한국문학의 산실이다. 도서관이 흔치 않은 시절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추억의 거리이기도 하다. 헌책방 도서관 건립 등 동문 거리만의 관광콘텐츠를 특화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한다.



김윤철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5분 자유발언

관광 거점도시 전주, 한옥마을 전망대 필요하다

전주시는 관광 거점도시 선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를 마련했다.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대표관광 브랜드는 단연코 한옥마을이다. 그렇기에 전주형 관광산업의 핵심인 한옥마을 야경을 조망하며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징적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에 한옥마을 전망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 당시에도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전주 전망 타워 설치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번 전주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전주 한옥마을 전망 타워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사진

시정질문

아중호수 야간명소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중호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건강증진 공간으로 이제 시민들의 사랑을 뛰어넘어 관광객들의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호수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전 5분 발언을 통해 아중호수 야간명소화 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아중호수가 인근 주민들의 보배로운 휴식공간이 되고 아중리의 상권의 효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야간 볼거리를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호수 남측을 중심으로 관광요소를 집목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도출되지 못해 재차 요청을 드리는 것이다. 시장님은 야간명소화 사업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다.



최용철 의원

풍남, 노송, 인후3동



정섬길 의원

서신동



의정활동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7월 7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용철 의원 등 16인 의원은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투수 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설치·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조례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부터 시작하여 책무 및 기본계획, 저영향개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최 의원은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화 시범사업 촉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성상별 분리 배출제 및 수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전면 권역화가 실시될 경우 기존 노동자의 부담해고, 장비 구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거 체계 개선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권역화 이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권역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전면 권역화 도입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 전주시는 권역화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은 이해와 배려의 대상' 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장애인 편의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 전반을 재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적절치 않은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개선 계획을 촉구했다. 법령상 특례 적용을 이유로 생활환경 인증 절차 등 각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 적격 여부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져왔기 때문이다. 시 예산으로 세워지는 시설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전주시에 거듭 요구한다.



5분 자유발언

가로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제안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대기오염 저감 등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로수의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와 본 의원이 파악한 전주시 가로수 시설별 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로수 정보 수기 보고로 인한 기록 누락, 종합 계획 설계관리 운영 문제 등 효율적인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가로수 DB 구축 사업 용역을 통한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제반으로 한 가로수 전산 시스템 구축은 가로수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명철 의원

서신동



5분 자유발언

재개발지역 마을 흔적 남기기와 서신동 아이파크 아파트 활성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본 의원은 사라져 가는 도시의 흔적과 기록을 보존하여 도시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신동 감나무골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도내기생에 대한 지역 기록화 사업 영역이 실시되고 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라지는 옛 마을의 흔적을 보존해 추억과 역사, 공동체 문화를 잇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신동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정문 앞 상가의 양쪽 도로변이 가드레일에 갇혀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이 자리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및 교통안전 문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 촉구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소각 부적정 폐기물 혼합 배출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재활용의 분리배출 원칙 철저히 세워야 한다. 셋째, 획기적인 생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시민적인 실천과 대대적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한 행정에서 벗어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환 계기로 삼아, 쓰레기 발생, 배출, 수입과 운반, 처리 과정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선해야 한다.



박형배 의원

효자4·5동



5분 자유발언

전주사랑상품권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전주사랑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캐시백을 1월부터 3월까지 20% 돌려받는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권 사용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여 지역 소비 습관을 익히게 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자의 95% 이상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전북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배달 앱과 쇼핑몰 카탈로그 서비스 도입 등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의 자립구조를 만들고, 공공요금 및 지방세 수납 등 지역화폐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하여 지역화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화폐의 용도를 단순히 경제 중심의 획일화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복원, 환경복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실천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

탄소진흥원 지정 이후, 전주시에 지원기관 필요하다

9월 8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배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이후 전주시의 출연금이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 지원기관을 준비해서 진흥원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거듭나면서 탄소소재 연구뿐만 아니라 탄소소재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지원 확대 및 사업비 규모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R&D의 전주기업 협업 지원 등 진흥원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인력이나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탄소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 미 숙 의원

효자4·5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인구정책, 모든 시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인구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학령인구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전주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배경에 따른 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최근 전주시가 인구정책 부서 T/F 팀을 구성한 만큼,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 출산, 보육, 일자리 등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모든 시책들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전주 경륜장 이전하고, 서부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라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 전주 경륜장은 30년 전에 건립된 대규모 시설이지만, 현재는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경륜장 부지는 지리적으로 전주대학교, 서부신시가지와 전주 혁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공간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에 전주 경륜장을 이전하고, 현 경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시가화(市街化)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륜장이 전주실내체육관과 야구장 들어설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하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하고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 발휘할 것이다. 특히, 경륜장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파손과 균열이 심하여 일부 보수가 이뤄졌지만 미봉책일 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전·신축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인 경륜장 부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도시기본계획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채 영 병 의원

효자4·5동



5분 자유발언

남녀 미분리 화장실의 개선을 촉구한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남녀 미분리 화장실 문제는 범죄의 위험성 이전에 인권의 영역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관련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 남녀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무려 14개소나 남아있었다.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한다.



5분 자유발언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하고, 그 과정을 전산화해 통해 관리한다.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배출해서는 안 되고, 위탁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의원은 판매기록제 도입을 제안한다. 판매기록제는 매립용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일련번호나 바코드를 넣고, 그것을 통해 구매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매 시 구매자만 기록하면 판매된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일련번호와 구매자를 연결해 부적절하게 배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2021의원 의정활동



김은영 의원

효자1·2·3동



5분 자유발언

합리적인 생활민원처리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현장 업무에 비중을 둔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연관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녹지 업무를 총괄 운영하다 보니 민원 전달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다른 지자체는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각종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에 진력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최근 청소 민원 일원화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민원 해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주시 생활민원의 경우 불편한 처리 절차부터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민원위원회 제도 도입, 전주시 생활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 행정 구현에 노력할 것을 전주시에 당부한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작년 의회에서 실시한 '지속 가능 교통물류로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전주시 통행 이동 수단이 승용차 55%, 시내버스 19%, 택시 13%, 자전거 2%로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분담률 10% 실현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제한 정기권 시책을 통해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 종류 및 이용 제약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일시 정지 신청 기능, 구입 및 충전 가맹점 확대,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행 등 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교통시스템 융합을 통한 전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경신 의원

효자1·2·3동



시정질문

맑은물사업본부 이전 부지와 관련하여

지난 제374회, 제37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효자동 맑은물 사업본부 이전에 대해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전주시가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맑은물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이 부지를 지역민에게 환원시켜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효자2동 주민센터의 경우 접근이 어렵고 협소한 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도도동 제2청사 신축을 위한 단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면 훗날 공공 부지 마련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효자동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를 효자2동 주민센터 등 주민을 위한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면, 상생의 정책 추진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맑은물사업본부 용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6월 있었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도도동 일대의 제2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전주시에 몇 가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 맑은물사업본부의 존치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싱크홀 발생, 겨울철 동파 사고에 따른 긴급출동 등 상수도 업무 특성상 빠른 처리가 급선무이다. 현장 민원의 원활한 대응이야말로 사업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주시장은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맑은물사업소 부지를 상업 용지로의 전환은 매각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기를 전주시에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21의원 의정활동



김동현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하라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 관광트램 도입 등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 대비 전주의 체류형 관광객 수가 늘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전주형 미션투어(전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면 완료 여부에 따라 여행경비나 특전을 지원하는 관광상품)의 도입을 촉구한다. 전주에는 분야별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문화와 볼거리가 많다. 미션투어를 통한 관광 상품 연계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으로 인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는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다각화를 통해, 전주시는 일회성 방문 도시가 아닌, 멋과 맛을 체류하며 즐기는 진정한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의정활동

공공형 자전거 도입을 위한 선진지 방문

김동현 의원은 전주시 공공형 자전거 도입을 위해 선진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등을 방문했다. 수원시는 2020년 공공자전거 '반디클'을 도입하여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로 사랑받고 있으며, 고양시는 2010년 도입된 공공자전거 '피프틴'이 오랫동안 이용되어오다가 현재는 '타조' 공유자전거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 사례를 통해, 공공형 자전거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도입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공공형을 포함한 공유자전거 운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옴니시스템을 방문하여, IoT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및 운용 시스템을 세밀히 고찰하였다. 김동현 의원은 전주시 공공형 자전거 도입 및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실제적 사례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승섭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전주시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 및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탓이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카카오 플랫폼 등 거대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차원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승객의 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선순환 택시업계 생태계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시 역시 공공플랫폼 개발 불에 동참하여 공정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5분 자유발언

삼천을 문화가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하자

효천지구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생태하천인 삼천(三川)을 '문화가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천에는 문화와 예술 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조성·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사업과 하천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천변(거리)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천변 곳곳에 관련 문학 작품이나 기록물 등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성남시가 시행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아울러 삼천 천변에 화장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삼천을 문화가 숨쉬는 하천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정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와 생태가 조화되는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김현덕 의원

삼천1·2·3동



5분 자유발언

생활문화센터 제도화 확립을 위한 제언

지역문화의 근간이었던 전주문화의 집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명칭을 통일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영과 민간위탁 중 합리적인 운영 방식과 운영기준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독립하고, 문화 소외지역이 없도록 생활권역별 균형 있는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설프로그램과 중복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지역문화를 반영한 생활문화 정책개발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시설로 활동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어 주는 곳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5분 자유발언

위드 코로나 전환 대비 일상 회복 대응 체계 마련하라

위드 코로나 시기를 준비하는 전주시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 근무로 고초를 겪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보건의로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위드 코로나에 대응할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긴급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방역체계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현실에 맞는 대응계획 수립 및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김남규 의원

송천1·2동



5분 자유발언

전주 관광거점도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전주시는 지난해 1월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사업 선정 이후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큰 진척이 없었음은 물론 올해부터 추진될 6개 사업도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이 약 8개월 정도 추가로 지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업 추진이 지체된 만큼, 전주시는 하루빨리 중앙부처와의 조율에 나서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용역과 별도로 지역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인 민간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 획기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주기를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

건지산 덕진공원 국가명승지 지정에 대하여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의원은 전주 북부권의 관광명소화는 지역 관광 주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의 산소 허파인 건지산, 덕진공원의 국가 명승지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전주시에 당부한다. 전주덕진공원의 경우 5년간 도비 50억을 지원을 받았지만 국가명승지로 지정받지 못해 한계가 명확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재된 덕진공원의 역사성, 신축 중인 연화정 등 그간의 용역을 토대로 국가명승지 재지정 신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의 치유의 숲 관광 힐링 거점 조성 사업 선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2021의원 의정활동



김 윤 권 의원

송천1·2동



5분 자유발언

아픈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삶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전담 인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해 아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의 병원 진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안한다. 또 병상을 갖춘 간병실, 간호사와 환아 돌봄 시사가 상주해 있는 '아픈 아이 돌봄 시설'을 제안한다.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완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 이전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면 하나의 건물에 육아와 돌봄에 필요한 기능을 해결할 수 있다. 전주시가 아동 권리 보호와 행복한 육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의정활동

미래세대연구회와 함께하는 'K-뉴딜 바로 알기'강연회 참여

김윤권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세대연구회가 개최한 'K-뉴딜 바로 알기' 강연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전주형 뉴딜 사업 주요 분야 등에 논의하고,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 강연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디지털 역량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두 번째 강연회인 「사회안전망 뉴딜」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들의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주만의 뉴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진 옥 의원

송천1·2동



5분 자유발언

2021년 혁신하는 전주시의회로 만들어 갑시다

한국판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인 혁신과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발적인 혁신과 뉴딜사업의 발굴과 확산은 정치가 책임져야 하며, 전주시 의회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시의 명칭을 부여받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뉴딜사업의 확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달라진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전주시의회의 선도적인 뉴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2021년 전주시 2조 예산을 3조 시대로 끌어올려 보자고 제안한다. 또한, K-뉴딜 정책 콘퍼런스와 정책 발굴대회, 전문가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전주시장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5분 자유발언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전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자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듯, 도로의 주인 또한 사람이어야 한다. 도로는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이다. 험프형은 턱을 없애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차량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일정시간 동안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옐로우 카펫 등 안전 시설물 설치와 학교 앞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이다.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2021의원 의정활동



강승원 의원

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5분 자유발언

전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현실화하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소상공인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ICT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확산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민간협력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 바이전주 자격 조건을 확대 재검토 해야한다.



5분 자유발언

인사행정 혁신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만들어야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조직개편 등 잦은 인사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이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정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 인수·인계'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먼저, 사전 인사발령 예고를 실시해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하고 전자적 인수인계시스템의 상시 운영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확대, 담당업무 책임제 도입,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인사행정 혁신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송상준 의원

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정활동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송상준 의원 등 10인 의원은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생 지급으로 한정했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 애써주시고 있는 통장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 본선 개최

전주시의회는 12월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본선 대회를 열고,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낸 조례안에 대해 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해당 대회는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입법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필요 조례안을 발굴하고 제정해보는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다. 이 대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따뜻한 시각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생활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전주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지원 조례안'이 대상을 수상했다. 조례연구회 회장인 송상준 의원은,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들이 많았고,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2021의원 의정활동



송영진 의원

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5분 자유발언

혁신도시, 탄소국가산단 대안역으로 동산역을 활용하자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코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는 교통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업무용 시설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듯,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여의동 동산역의 혁신도시 대안 역사 지정과 혁신도시 교통망 확대를 촉구한다. 전국 2시간대 고속철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산역의 혁신도시 대안역 활용은 혁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와 팔복-여의동 역세권 일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본래 목적에 맞는 전주 시내 다목적체육관 설계 필요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 의원은 이 체육관 건립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체육관 설계 자체를 농구에 특정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여러 국제대회를 소화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차례 진행된 실무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이 다양한 종목을 위한 체육관, 시민들이 사용할 수 공간 마련이므로 전문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수혜 배분의 균형점을 찾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KCC의 책임있는 사회공헌 역할을 요구하고, 전주시와 KCC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충족과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김호성 의원

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정활동

진북동 '어린이날 꿈나무 나눔행사' 참여

김호성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진북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린이날 꿈나무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어린이 후원을 위해 진북동 5개 자생단체가 마련했으며, 생크림 케이크 등 다양한 물품을 한부모가정과 스마일지역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90여명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큰 때에, 따뜻한 깜짝 선물이 아이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스마일지역아동센터장을 만나 진북동 어린이 후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어은골 쌍다리 보강공사 필요하다

김호성 의원은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작년에도 어은골 쌍다리 보강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름철에 하천이 범람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어서 착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한 공사를 주문했다. 특히,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는 장마철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재해가 잦은 곳으로, 다리 난간이 부서지는 등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관련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시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시급한 공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안의 시급성에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의원 의정활동



박선전 의원

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5분 자유발언

인덕마을 집단거주지 양성화 촉구

전북대병원 근처 바로 아래 인덕마을은 국유지로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같은 주소에 43가구 11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무허가 마을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한국자산공사(캠코)로 이관되었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인덕마을 주민들에게 수의매각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33가구 주민들은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고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소가 없다 보니 각종 건축행위가 불가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용지로 된 인덕마을 토지를 용도 변경하고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 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난민이 아닌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덕마을 주민의 꿈을 전주시가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의정활동

경관농업지구 관리 문제 등 행정 기준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6월 17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선전 의원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 앞 경관농업지구 경관작물 시범 파종(유채꽃)과 관련하여 농민회와의 갈등으로 파종 작물이 훼손된 것에 대해 행정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외부인 유입 등에 대한 우려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나, 유채꽃밭에 대한 경관작물 예산이 4천만원이나 소요되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록 작물이 다시 복구되어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도도동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한 행정 민원이 있어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행정 기준 및 조치를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

우아1·2동, 호성동



5분 자유발언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돌봄 지원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대비 2.1배나 높다. 그 중 우리 사회의 20대 자살률은 19.2명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10.2%, 28.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급격한 청년 자살률의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청년들의 목을 옥죄이는 사슬이 되고 있다. 더욱이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은 한없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시의 원동력이자 희망이다.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 확대로 정신적 탈진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돌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정질문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하라

지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본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지난 8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당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합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추가 이행합의서 작성하겠다는 것이 올바른지 묻고 싶다. 또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쓰레기 성상검사 등의 행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협약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 감시 요원의 수를 법적 인원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66만 전주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알게 되고 전주시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는 지금, 전주시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온 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서윤근 의원

우아1·2동, 호성동



시정질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전주시장의 결재 없이 (주) 자광에 전달되었다. 주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원 역시 권고안이 전달되는 날까지 권고안 수용여부를 알지 못했다. 당초 전주시장은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 시장이 아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이 수용되었다고 추후 밝혀졌다. 전주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전주시장의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3월 방송토론 당시 (주) 자광 대표의 공동 주택 건립의 필요성 주장, 권고안에 나온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과 혼잡한 교통환경에 대한 해결 방안,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



5분 자유발언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지방자치 복지대상 수상, 전국 지자체 최초 사회복지사 복지 카드 도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전주시는 내실 있는 복지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주거보호협회의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도와 전주시는 최하위 수준이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 한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인력, 시간외수당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전주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이 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박윤정 의원

비례대표



시정질문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라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인 바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본 의원이 버스회사 보조금에 대하여 생채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집행을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이다. 수년 전 버스 보조금 유용에 전주시가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전주 시장은 피복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실, 버스회사의 보조금 사후 관리에 너무나도 느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연 5백억원의 보조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버스 행정을 기대한다.



의정활동

전주시 생활권 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

박윤정 의원은 10월 28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전주시 생활권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인 전주시 생활권 계획 참여단 모집 등 시민 주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도시계획과 생활계획, 전주시 생활권 계획 필요성 및 과제 등 전주시 생활권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수립 방향을 주제로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통해 박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함께 하는 전주시 생활권 계획 참여단 구성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진적인 전주시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도시 전주를 구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의원 의정활동



이윤자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조선왕조 본향 위상 정립 및 관광 자원화 촉구

‘가장 전주다운 문화기반, 세계여행 도시 추진’을 위해 전주시는 전라감영과 전주 부성 복원, 풍패지관 서익헌 보수 등 전주가 가진 문화자산 재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조선왕조 본향의 자산을 제대로 보존·연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경묘와 조경단이 그 대표적 예다. 국가 문화재 승격은커녕 소홀한 관리로 외면당하고 있는 조경묘와 조경단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조선왕조 본향 위상 정립과 이와 관련한 유무형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코스 개발을 전주시에 당부한다. 전주시가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 축적한 전주만의 문화자산들을 집약해 역사관광 브랜드로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능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연구회(회장 이윤자 의원)가 11월 15일 문화경제위원회실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추진한 용역에 대해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연구회는 시민의 우울, 불안감, 낮은 경제수준, 수입감소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주시민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영향과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의정포럼연구회 회장인 이윤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과 불안, 무기력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 및 건강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심리회복 방안을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진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전주만의 차별화된 공공배달 플랫폼을 신중하게 도입하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앱’이 인기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독과점, 높은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타 지자체와 차별성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공 배달앱은 개발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앱 개발 시스템 구축보다는 현재 개발된 민간 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앱의 활용도 제고와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을 만족시킬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화폐 활용 측면에서도 연동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분 자유발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하자

전주시 249개 공원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은 덕진공원 등 총 15개소이다. 전주시는 일몰제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후 지난해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사유지는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정작 전주시는 ‘협의’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 계획 고시 전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지만, 처음 협의회를 진행할 때 토지주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 매입 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 계획이 확실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보존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허옥희 의원

비례대표



5분 자유발언

책임 있는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계획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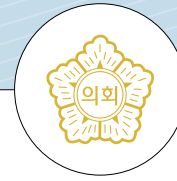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삼전동 삼산마을 인근에만 주민지원기금을 집중지원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한 이권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전주 소각장의 운영중단과 이전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본 의원은 현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이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은 한 마을의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이전설치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시정질문

노동자들의 불법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2017년 초, 전주시의 청소대행업체가 변경되면서 네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어 기나긴 복직 투쟁 끝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또 다시 청소대행업체 중 두 명의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통보가 이뤄지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렇게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특정부서 또는 담당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해고가 없도록 일관성 있는 방침과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알고 싶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교생들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4학년~6학년)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퀴즈풀이,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매년 학기 초 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NEWS

전주시의회,
의정 30년 역사 기록에 담아

“지방자치제 부활한 1991년부터 현재의 기록까지 한 권의 책에 수록”

전주시의회가 총 664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담은 ‘전주시의회 30년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 의회 30년 역사를 기록에 남겼다.

이 책은 지난 1961년 군부 독재 시절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제4대 의회부터 현재 11대 의회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수록했다. 책자의 구성을 보면 강동화 의장의 발간사를 필두로 전주시의회 연혁과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통사(通史)’는 1952년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시대가 열린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기록했다. 제2편 ‘전주시의회 2021을 말한다’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현재와 5개 상임위원회, 6개 의

원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역대 연구단체의 빛나는 발자취를 돌아보고,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중국 쑤저우시 인민대회 등 의회의 친선교류 역사도 되돌아봤다.

제3편 ‘사진으로 보는 30년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사를 주제별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형식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4편은 역대 의원 명단과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전주시의회 연혁 등을 수록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11월 15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져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회에는 역대 의장단 10명을 포함해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34명의 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

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동화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시의회 역사, 전주시의 변화를 집대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 발전을 선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JEONJU CITY COUNCIL
NEWS

전주풍경 |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숲과 정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빈 거리에 가로수가 식재되고 도심 속 여유 공간, 마을 곳곳 자투리 공간마다 꽃들이 피어난다. 하루하루 초록으로 무성해지 도시, 전주. 3년 전 전주가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사업을 시작한 후, 도시에 맑고 시원한 숨결을 불어 넣고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주는 숲과 정원이 부쩍 늘었다. 시민이 현수한 한 그루에서 시작해 천만 그루를 향한 전주의 초록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천만 그루 정원으로 숨 쉬는 도시

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 천만 그루 정원도시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주는 2018년 11월 첫 시민 나무 헌수식을 시작으로, 금암분수정원,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등 전주만의 품격과 가치를 담은 개성 있는 정원들을 조성해 왔다. 전주는 내년까지 첫마중길, 백제대로, 서노송 예술촌 등을 중심으로 숲과 정원을 조성한다. 우선 첫마중길은 더욱더 울창한 숲과 정원으로 꾸며진다. 키 큰 나무들만 이어진 가로수길에서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 공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초록 길로 변모 중인데 습지 정원, 야생화 정원 등 주제별 정원이 들어서고 작은 나무들, 풀과 꽃, 작은 폭포와 쉼터를 마련해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길로 탄생한다.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람길숲 사업은 도시 안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도시 외곽의 산림과 연결하여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전주시를 가르는

백제대로,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차도는 줄이지 않고 기존의 인도를 재구획하여 가로수를 심고 띠녹지 공간을 만든다. 인권과 문화, 예술마을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 예술촌에도 정원숲이 조성된다. 물왕벌길(나비물길), 권삼득로, 골목길, 기린대로에 6곳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을 잇는 정원 둘레길이 마무리되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사업’ 에도 선정되어 1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원 명소 15곳을 조성하게 된다.

일상의 정원, 시민의 정원

전주가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천만 그루 정원도시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정원, 시민 스스로 가꾸고 즐기는 정원이다.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 을 통해, 시민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은 조성된 지 2년이 넘는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식물의 다양성과 정원의 창의성, 완성도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시민 투표

를 거쳐 선정한다. 두 번의 공모전에서 개인 정원과 공동체 정원, 갤러리와 카페 정원 등 여러 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었다. 또 전주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파하고 시민이 가꾸는 정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초록 정원사 양성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초록정원사 과정은 식물 관리와 정원 조성에 대한 이론, 실습 과정으로 이뤄져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초록정원사 교육은 매번 모집 인원이 초과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원, 일상에서 산업이 되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핵심 의제인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녹색산업이기도 하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선언한 전주소 그에 발맞춰 정원을 일상에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산업의 출발점으로 전주시는 지난 6월 첫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단지 정원 식물을 모아 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 소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는 박람회로, 정원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박람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는 도도동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최초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정원과 관련한 생산, 유통, R&D, 교육, 관광 등 모든 시설과 기능이 집적화된 공간으로, 정원 식물 소재 생산 구역, 정원 박람회 구역, 정원 휴양 및 관광 구역 등 총 5개의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산업은 2025년 약 2조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자,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해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정원산업을 이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소 대한민국의 정원 문화와 정원산업의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지켜내는 도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전주풍경 | 야호 놀이터 도시



건강한 위험이 모험심을 키우는 숲 놀이터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일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놀이터 아닐까? 안전만을 강조하는 놀이터가 아닌, 스스로 위험을 극복하는 놀이터가 상상력과 모험을 자극한다. 그래서 전주시는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아이들이 모험심과 협동심, 상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야호생태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등 현재까지 30여 곳에 조성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야호생태숲체험장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노는 공간이다. 꼬불꼬불 도토리숲, 신기방기 도깨비 숲 등 재미난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무 위에 지은 오두막, 나무 사이를 오가는 질라인(zipline), 나무로 만든 실로폰 등 모든 놀이기구는 규격화된 아름다움 대신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인후공원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학산, 서곡지구에 자리한 유아숲체험원은 자연에 사는 생물에 대해 배우며 모험심을 기르는 놀이 시설로 인기가 많다. 밧줄 건너기, 흔들다리 건너기 등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 시설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송천동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뒤편에도 유아숲체험원을 새롭게 조성 중이다. 중국단풍과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목대가 있어 생태교육 효과가 높고,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전주동물원 등과 연계해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놀이 코스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평일몰적이고 규격화된 놀이기구가 들어선 동네 놀이터는 생태 놀이터로 조성 중이다. 시는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에서 14곳의 생태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앞 노송광장 생태 놀이터는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놀이터로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덕진동 쇄봉구리공원 등의 놀이 환경을 개선했고, 송천동 솔내어린이공원, 중화산동 중산3길 어린이공원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함께 어울려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로 변신한다. 숲과 함께 모험과 탐험을 통해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는 전주시 놀이터의 변신은 계속된다.

책이 삶이 되는 즐거운 책 놀이터

전주는 오래된 출판·기록문화의 도시다. 조선 시대 전라감영에서 제작한 목판 책 '완판본'이 바로 그 증거다. '완판본'은 서울과 경기의 정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이끌었다. 완판본의 명성을 이어 온 전주는 이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꿈꾼다.

먼저, 전주에서는 특별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짙은 갈색의 나무 의자 대신 알록달록한 색을 입은 의자와 폭신한 소파, 부드러운 곡선의 계단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는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아이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책과 노는 놀이터가 됐다. 전국 최초로 12세부터 16세까지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도 생겼다. 평화도서관도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며 쉬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했다. 열람실 중심이었던 삼천도서관도 상상력이 샘솟는 책 놀이터로 변신했다. 오래되고 낡은 금암·인후·송천도서관도 대대적인 변신을 통해 올겨울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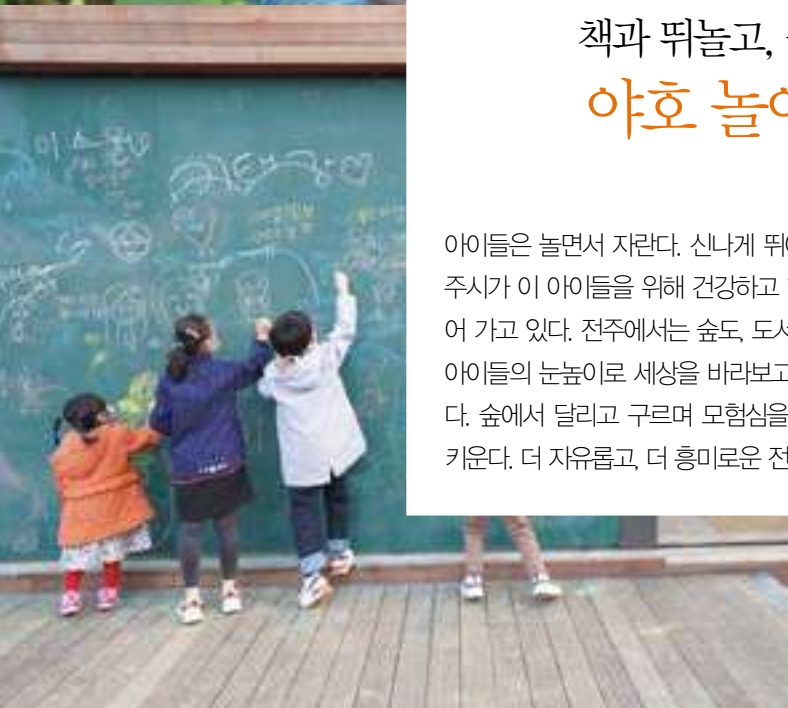
특화도서관도 눈에 띈다. 그 시작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이다. 우뚝 솟은 기둥에는 각기 다른 주제의 책들이 자리한다. 숲속 호숫가에 자리 잡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도 만날 수 있다. 완산도서관은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으로 변화중인데, 현재 자작자작 책공작소에서는 시민들이 입주해 책을 쓰고 글세를 낸다. 전주를 찾는 여행객과 주민들을 위한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여행 책과 쉽게 만날 수 없는 디자인 서적들이 전시돼 있다. 팔복예술공장에는 온 가족을 위한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 들어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로비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봉사 전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이 밖에도 내년 덕진공원에 연화정도서관이 들어서고, 아중호수에는 호숫가를 따라 곡선으로 지어지는 도서관이 들어선다.

올해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했던 도서관 여행은 책과 숲, 문화 등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도서관 여행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는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고, 책과 놀고, 책과 여행하는 책 놀이터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책과 뛰놀고, 숲에서 놀아요 야호 놀이터 도시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 신나게 뛰어놀며 몸도 마음도 쑥쑥 커 간다. 전주시가 이 아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놀이터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에서는 숲도, 도서관도 모두 놀이터가 된다. 키를 낮춰 아이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덕이다. 숲에서 달리고 구르며 모험심을 기르고, 책과 함께 뛰놀며 상상력을 키운다. 더 자유롭고, 더 흥미로운 전주형 야호 놀이터를 만나 보자.



2022년도 회기 운영 계획				
월 별	회 기	회의 일수	주 요 안 건	비 고
연간	총 10 회 (정례회2회/임시회8회)	103		
2월	제387회 임시회	7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설날연휴 (1.30~2.2)
	2.17.(목)~2.23.(수)			
3월	제388회 임시회	9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대통령선거 (3.9)
	3.16.(수)~3.24.(목)			
4월	제389회 임시회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4.29~5.8)
	4.18.(월)~4.22.(금)			
5월	제390회 임시회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5.9.(월)~5.13.(금)			
6월	제391회 임시회	13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지방선거 (6.1) *전주단오제 (6.13~6.14)
	6.8.(수)~6.20.(월)			
7월	제392회 임시회	3	· 제12대 전반기 의장 · 부의장 선거 ·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7.4.(월)~7.6.(수)			
9월	제393회 임시회	14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추석연휴 (9.9~9.12)
	9.14.(수)~9.27.(화)			
10월	제394회 제1차 정례회	7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 · 방법)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시민체육대회 (10.1) *비빔밥축제 (10.6~10.9)
	10.12.(수)~10.18.(화)			
11월 ~ 12월	제395회 임시회	32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정에 대한 질문 ·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11.15.(화)~12.16.(금)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마치며...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21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주시의회
JEONJU CITY COUNCIL